

제33호
.....
202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202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 03 1. 교수회장 인사말
- 04 2. 총장선거 및 선출규정에 관한 연구
- 09 3. 교연비 및 교수복지에 관한 연구
- 12 4. 신입교원 소개
- 30 5. 정년퇴임교원 소개
- 32 6. 교수 동정
- 34 7. 교수회 활동
 - 34 - 교수평의회
 - 35 - 국교련, 지교련 활동
 - 38 - 교수회 공개질의
- 64 8. 교수회 운영규정
- 67 9. 평의회 명단

발간사

2022 교수회보

존경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대학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GPT-3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 10주년 기념판의 서문을 썼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 자신도 ‘이 글을 진짜 AI가 썼느냐?’고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고 합니다.



교수회장
왕보현

대체 인간의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바둑을 마스터한 알파고를 넘어 AI가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이 앞으로 인공지능과 어떤 모습으로 공존해야 할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대학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답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한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보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사립대들은 이미 대규모 미달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우리 대학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임 교수님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신임 교수님들의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과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4대 교수회에서는 교수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수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바를 빠짐없이 대학 본부에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수회보에는 지난 제3대 교수회에서 수행한 ‘총장 선거 및 선출 규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 결과를 요약해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우리 대학에 새로 부임하신 47명의 신임 교수님들과 명예롭게 정년 퇴임하신 41명의 교수님 소개, 교수 동정, 교수회 활동, 교수 평의회 명단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수 회보를 발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교수회 임원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09월 교수회장 **왕보현**

총장 선거 및 선출 규정에 관한 연구

전기공학과 박 철 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의 총장 선출을 개학의 자율에 맡긴다고 선언함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교무처의 주도로 총장선출 선거 관련하여 직역반영결정위원회에서 비교원 직역 투표반영 비율 합의와 전체 교수회의 서면투표를 통하여 총장공모제가 총장직선제로 변경, 총장선출방식이 결정되었다.

4개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본부 교무처 주관으로 제정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2019년 11월 6일에 실시된 1차 투표 및 2차 투표 총장선거를 통해 반선섭 후보가 1순위자로 당선되었다. 이번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투표는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를 비롯하여 직원, 조교 및 학생이 참여한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2019년 전반기에 처음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회와의 역할 분담 문제가 제기되었고, 교수회 주관 정책연구를 통하여 대안들이 모색되었다. 한편,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및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은 당시 촉박한 일정에 따라 다소 급조되어 만들어져서 최근 일부 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반 규정들은 총장 선거 및 선출 규정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021년 9월 1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는데,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서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개정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호의 규정은 해당대학에서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방법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시행일은 2021년 12월25일이라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공무원법 적용 관련 질의 요청에 회신하였다.

2021년 말, 군산대학교는 제9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군산대 교수, 직원, 학생 투표 참여 비율을

놓고 마찰이 일어났으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적용에 전국 40여개 국·공립대학의 이목이 쏠렸다.

2021년 말 현재 군산대학교의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수 81%, 교직원 16.3%, 학생 2.7% 비율로 구성된다. 일부 강경교수들은 교수 1표, 직원 1인 0.25%, 학생 0.085%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민노층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교수 45%, 직원과 학생 55%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및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의 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의 개선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③ 권한 및 의무 ④ 선거권과 피선거권 ⑤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절차 ⑥ 투표반영 비율 및 득표수 계산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및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의 구체화를 위해 교수회 주관의 정책연구 추진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 연구내용

○ 연구방법

- 국·공립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시행세칙 관련 자료 수집
- 일본, 미국, 유럽(독일, 프랑스) 등 해외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거점대, 국중대, 교육대, 특수대의 자료 분석 및 비교
- 해당 부서(교수회, 교무과 등)로부터의 현황, 사례 수집 및 문제점 도출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관련 쟁점 도출 및 세부항목 선정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시행세칙 관련 쟁점 도출 및 세부항목 선정
-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설문 조사
- 국·공립대학별 관련 규정 및 설문조사 내용의 정리·분석
- 타 대학의 규정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결론 및 개선 방안 도출
- 취합 정리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연구범위 및 내용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및 시행 세칙의 개선방향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의 적정성 개선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시행세칙의 적정성 개선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의 개선
- 추천위원회의 구성
- 권한 및 의무
- 선거권과 피선거권
- 투표반영 비율 및 득표수 계산 등
- 타 국립대학 및 해외 대학의 사례 조사 등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의 조사 및 분석
 - 적정 사례 및 우리 대학 적용가능 모델 발굴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및 시행 세칙의 개선안 마련 및 제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및 시행 세칙의 전반적 정비에 활용
- 총장임용후보자 추대절차, 결격사유에 대한 일부 논란 불식 및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체의 화합 및 능동적 대응 가능한 대학의 환경준비
-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활용방안

-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정보 제공
-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및 시행 세칙의 개정안
- 관련 규정의 정립 및 검토 활용

4. 결론

우리 대학은 총장의 임기만료 전 180일까지,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총장이나 교수회장 및 기타 본부 보직자들이 총장에 출마할 경우에, 보직사퇴 시기를

등록시작 25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직 교수회장이 총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공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교수회장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약 2~3개월 동안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회에서 18명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퇴시기를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으로 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교수회장이 총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교수회장 추천위원 2명을 교수평의회에서 선출한다거나 교수평의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하여 추천하는 등의 보완 규정을 두는 것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교수회장이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총장이나 기타 본부 보직자들도 동일한 기준을 정해 사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학구성원별(지역별) 비율과 구성원 간 투표반영 비율의 문제이다. 최근에 총장선거를 실시한 군산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는 직원, 학생 등의 투표반영 비율의 상향 요구로 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2019년 9월, 4개 지역(교수회, 직원연합회, 조교연합회, 학생회)의 대표들이 참여한 지역별반영비율결정위원회를 통해 비교원영역 투표반영비율을 선제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 이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4(대학의 장의 임용) 3항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규정에 부합된다.

한편, 우리 대학의 규정은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전국평균보다도 높으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 대학이 이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의 국립대학에서는,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대학 외부의 유식지를 포함한 「총·학장 선고(選考)회의」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총·학장의 책임자를 학내외에서 전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의 의사가 총장선출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었다. 반영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대학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

데, 이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업적물 검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학과 한국교통대학교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자들의 연구업적물을 검증하고 있다. 연구업적물 검증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전북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비교대상 모든 대학교에서 학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업적물을 검증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10여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고려할 때, 별도의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연구업적물을 검증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비교대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구업적물 검증 대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그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교통대학교는 ‘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된 경우에 초빙과정에 참여한 교수는 전반기 2년 동안 본부 보직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교통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독특한 규정이었다.

교연비 및 교수복지에 관한 연구

기계공학과 신 준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학에서 교수에게 제공하는 교연비 및 다양한 형태의 연구비와 복지 지원 정책은 직장에서의 혜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교수의 복지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교연비, 연구년 및 장기파견 등의 연구비와 연관된 항목들에 대해 타 대학과의 비교를 통한 현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기타 복지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연구비 증액이나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정책 도입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연비의 경우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 증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연비 증액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제안은 무의미하며, 타 대학의 교연비 지급 현황 및 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더욱이, 교연비의 경우에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 교연비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교련(국립대학교교수연합회)이나 국교조(국립대학교교수노조) 차원에서 정당한 논리를 근거로 교육부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본부 차원에서도 다른 국립대학들과 보조를 맞춰서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지원하는 연구년, 장기 해외파견, 학술연구조성비 등은 교수에 대한 혜택이 아닌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타 대학의 지원비 수준 및 지원 항목 등을 우리 대학과 비교·검토하여 개선 방안이 있다면 대학에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5년 이내에 현 교수 정원의 50% 이상이 퇴직할 예정이므로 명예교수에 대한 타 대학의 복지와 처우 수준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우리 대학의 상황에 맞는 규정 및 제도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비 이외의 일반적인 복지에 관한 연구는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대학의 현황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복지의 개념이나 항목 선정 등에 있어 개별 연구자의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의 객관성과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설문자를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설문을 이용한 통계적 연구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금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대학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수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순한 증액성 정책 제안은 지양하고, 타 대학과 비교한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항목 등을 참고한 새로운 복지 정책의 제안 등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연비 및 각종 연구비에 대하여 타 국립대학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기타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전임 교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 대학 복지 수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연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7개교 거점 국립대학교의 교연비와 10개교 지역중심 국립대학교의 교연비에 대한 기초현황을 파악하였고, 각 대학별 교연비 지급 기준액과 제출 서류를 정리, 요약,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타 대학과 비교한 우리 대학의 현황을 근거로 교연비의 단순 증액을 제안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교연비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교연비 대신 연구수당 및 교직 수당 조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자료가 수집된 10여개의 국립대학과 우리 대학의 학술연구조성비, 연구년 및 장기 해외파견, 초과 강사료, 평생교육원 할인 등에 대해 각 대학별 지급 기준액과 요건 등을 비교 분석한 후, 우리 대학의 지급 현황과 비교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타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복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된 설문 내용은 응답자 특성, 복지에 대한 인식, 복지시설 이용 및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체 전임교원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통계에 적합한 66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향후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설문의 내용을 기초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각 장에서 평가된 항목을 기준으로 복지에 대한 결론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정리 절차를 거쳐 교수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학 본부에 개선 요구나 정책 제안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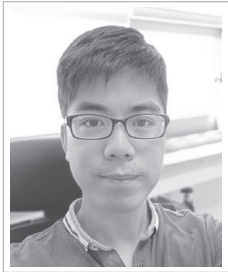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교연비 및 교수복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전체 교수님들에게 우리 대학의 복지 현황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 및 비전임 교원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 타 대학과 비교한 우리 대학 교수의 복지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홍보
- ▶ 연구에서 제안된 항목들의 대학 본부 정책 반영에 따른 교수님들의 복지 수준 향상

한편 본 연구의 결론에서 도출된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개선 방안 등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타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대학 교수의 복지향상 요구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및 명예교수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
- ▶ 대학 본부 차원의 복지 항목 개발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신입교원 소개 2021.3. ~ 2022.3.



성 명 박정규
소 속 사학과
메 일 jkpark21@gwnu.ac.kr
연구실 033-640-2147
임용년월 2021.10.

연구 활동 소개

주 연구분야는 17세기 영국 근대 사상사이며, 현재 근대 초 영국과 유럽 지식인 네트워크의 사상적 교류와 종교 담론이 근대 초 유럽 지식인에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종교 담론의 변화를 당대 맥락에서 짚어보는 사상사 연구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학력

학사 : 부산대학교 사학과
석사 :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 : Swansea University 역사학과

경력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한국과학영재학교 인문예술학부 강사



성 명 안승우
소 속 철학과
메 일 answ@gwnu.ac.kr
연구실 033-640-2137
임용년월 2021.9.

연구 활동 소개

고대 중국에서부터 근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유학자들이 마음, 감정, 죽음 등 보편적인 철학적 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구한말 일제강점기 유학자들이 서구 과학지식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던 시기에 서구학문과 전통철학 사이에서 마음[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마음의 주체성을 강조해온 한국철학의 맥락 속에서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어떤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철학과 전통문화가 우리 시대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력

학사 :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석사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경력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한양대 강사



성 명 백승환
 소 속 철학과
 메 일 seunghwanbaek@gwnu.ac.kr
 연구실 033-640-2136
 임용년월 2022.3.

연구 활동 소개

서양 근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한 데 종합해서 자신의 비판철학 체계를 완성할 것을 꿈꾸는 칸트의 초월론적 형이상학 방법론을 의미 있게 오늘날의 맥락에서 되새기는 데 저는 가장 큰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 관심을 보다 넓혀서 또한 교육철학과 환경철학에 대한 문제들도 열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 전공분야: 형이상학, 심리철학
- 관심분야: 교육철학, 환경철학

학력

학사 : 서울대학교 (SNU, B.A., 2004)
 석사 : 서울대학교 (SNU, M.A., 2006)
 석사 : 존스홉킨스대학교(JHU, M.A., 2013)
 박사 : 존스홉킨스대학교(JHU, Ph.D., 2020)

경력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철학교수요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



성 명 박훈민
 소 속 법학과
 메 일 hunmin@gwnu.ac.kr
 연구실 033-640-2212
 임용년월 2022.3.

연구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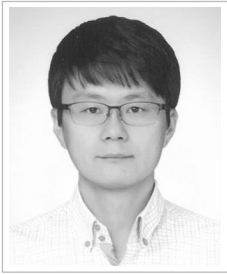
- 행정법 일반이론/ 행정절차법제 등
- 공법 분야 비교법 연구
- 인공지능 및 행정 관련 법제 연구
- 남북관계 관련 법제 연구
- 조달법제, 해양경찰법제 등

학력

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경력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개정 전문가자문단



성 명 김민창
소 속 경제학과
메 일 mckim@gwnu.ac.kr
연구실 033-640-2171
임용년월 2021.3.

연구 활동 소개

- 지역 경제성장과 중소기업, 창업 등
-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학력

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경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산업연구실 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 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성 명 박수경
소 속 경제학과
메 일 soo62@gwnu.ac.kr
연구실 033-640-2173
임용년월 2021.10.

연구 활동 소개

- 연구 분야 : 화폐금융론, 개방거시경제학
- ▷ 거시경제 변수(이자율, 산출, 물가, 인플레이션, 환율, 실업률)의 관계 도출
 - ▷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추정
 - ▷ 거시경제모형(거시변수 펀더멘털)을 이용한 환율 예측
 - ▷ 최근 진행 중인 연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전력수요 예측 모형 수립, 제주 지역 관광객 수 및 COVID-19 확진자 수 추계 등

학력

학사 :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경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BK21Plus 한국경제사업단 및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성 명 이재석
 소 속 관광경영학과
 메 일 jaeseok.lee@gwnu.ac.kr
 연구실 033-640-2218
 임용년월 2021.10.

연구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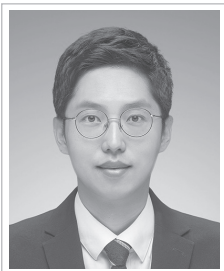
- 이재석 교수는 관광객 행동 및 의사결정과 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특수 목적관광(SIT)분야와 카지노복합리조트 분야에서의 발견되는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학력

학사 : 경희대학교
 석사 : 경희대학교
 박사 : Temple University, USA

경력

Assistant Professor, Maca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cao SAR
 Assistant Professor, Antalya Bilim University, Turkey



성 명 배창현
 소 속 회계학과
 메 일 bchyun@gwnu.ac.kr
 연구실 033-640-2184
 임용년월 2021.3.

연구 활동 소개 (자유 형식)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시, 주주행동주의, ESG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대회 참여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2. 01. 전국 대학(원)생 기업가정신 연구 경진대회(한국경영학회&기업가정신학회), 최우수상

2021. 10. 전국 대학(원)생 기업가정신 및 창업 경진대회(한국경영학회&한국창업학회), 특별상 & 우수 지도교수상

2021. 06. 제1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한국회계학회), 장려상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환경 및 사회를 중심으로) 및 ESG 공시 이슈, 2021, 연금포럼 83호

최근 확대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소고, 2021, 증권금융 제346호

ESG 이슈(회계저널 30권 2호), 2021, 월간공인회계사 8월호

학력

학사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박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경력

대신경제연구소 ESG본부 선임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박사후연수
 연세대학교 포닥



성 명 김민석
소 속 물리학과
메 일 minsuk@gwnu.ac.kr
연구실 033-640-2292
임용년월 2021.10.

연구 활동 소개 (자유 형식)

- 연구 분야: 입자물리실험
-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거대강입자가속기(LHC)의 CMS 실험
- Top Quark Physics
- Jet Energy Corrections & Resolution
- Dual-Readout Calorimeter R&D for future collider projects

학력

학사 :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박사 :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경력

Post-doc: 피츠버그대학교, 알버타대학교
연구 교수: 경북대, 헬싱키대/물리학연구원



성 명 박현봉
소 속 생물학과
메 일 hyunbong.park@gwnu.ac.kr
연구실 033-640-2313
임용년월 2021.10.

연구 활동 소개

핵심 연구분야: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 숙주-미생물 상호작용
- 천연물화학 및 화학생물학

실험실 주 연구활동 소개:

- 다양한 숙주-미생물간의 상호작용에 밀접히 연관된 물질대사를 생화학적인 기법으로 규명, 궁극적으로는 숙주의 생물학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의 건강과 질병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바이옴물질대사와 인체의 다양한 질병의 연관성을, 미생물학, 단백질생화학, 천연물화학, 그리고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자 합니다.

학력

학사 : 국립강릉대학교 생물학과
석사 : 국립강릉대학교-KIST
학연협동과정학과
박사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경력

박사후연구원: 예일대학교 (Yale University) 화학과
그리고 화학생물학연구소



성명 이원상
 소속 정보통계학과
 메일 won,sang.l@gwnu.ac.kr
 연구실 033-640-2277
 임용년월 2021.9.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컴퓨터·산업공학, 문헌정보학
 박사 :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

경력

NHN, SK텔레콤 등

연구 활동 소개

저는 다양한 통계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기술경영 분야의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주로 기술혁신과 기술융합의 이해를 위한 혁신 생태계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분야를 확장하여,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의 비즈니스 적용을 목표로 계량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방형 혁신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앙트러프러너십 등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명 김영철
 소속 수산생명의학과
 메일 sai100@gwnu.ac.kr
 연구실 033-640-2412
 임용년월 2022.3.

학력

학사 :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석사 :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전공
 박사 :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전공

경력

2018.5~2019.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2019.6~202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2021.3~2022.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리연구과

연구 활동 소개

수산생명의학과는 이러한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고 처방,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수산생물의 감염성 바이러스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분야를 맡아 교육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 바이러스 진단법 개발 및 유효성 검증 2) 바이러스 및 감염성 질병 특성 연구 3) 변이 및 신종 바이러스성 질병 동정 4) 바이러스 백신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연지
소속 식품가공유통학과
메일 joyeonji@gwnu.ac.kr
연구실 033-640-2962
임용년월 2021.10.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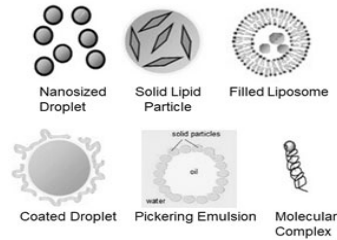
학사 : 경기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석사 : 경기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박사 : 건국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과

경력

- PostDoc Fellow,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 연구전임 조교수, 건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 PostDoc Fellow,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KIT), Germany

연구 활동 소개

- 연구 분야 : 기능성 식품소재 제형개발 및 물성조절 연구



-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발굴 및 구조-기능 상호관계 규명
-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식품소재 제어 및 전달을 위한 캡슐화/제형화 기술개발
- 다기능성 고령친화식품 제품개발을 위한 물성 조절 연구



성명 박성훈
소속 식품영양학과
메일 sungpark@gwnu.ac.kr
연구실 033-640-2332
임용년월 2021.9.

연구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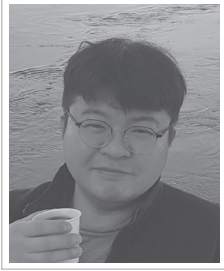
- 탄수화물 소재 연구
- 소재 응용 연구 (제과/제빵)

학력

학사 :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박사 : McGill University 식품공학과

경력

Agriculture Canada 박사후 연구원
Purdue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SPC 식품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성 명 한덕기
 소 속 해양생명과학과
 메 일 dukkihan@gwnu.ac.kr
 연구실 033-640-1675
 임용년월 2021.9.

연구 활동 소개

마이크로바이옴은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집단의 유전체를 연구하는 최신의 생명과학 분야이며, 인류의 삶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유전체(eDNA)를 분석하여 해양환경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의 생태 및 대사기능을 연구합니다.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연구과제로 1) 극지(남·북극) 해양미생물생태 2) 해양플랑크톤생태 및 어류 장내미생물생태 3) 해양생물 항생제내성 모니터링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학력

학사 : 부경대학교
 석사 : 광주과학기술원
 박사 : 광주과학기술원

경력

PostDoc Fellow, University of Bremen
 PostDoc Fellow, 제주대학교
 연구원, 극지연구소



성 명 신중호
 소 속 신소재금속공학
 메 일 junghos@gwnu.ac.kr
 연구실 033-640-2485
 임용년월 2022.4

연구 활동 소개

- 재료의 구조-물성에 대한 이해
- 재료의 변형에 대한 기저원리
- 금속재료에서의 결함제어
- 친환경·고에너지효율 재료공정 및 설계

학력

학사 : 서울대학교
 석사 : 서울대학교
 박사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마르세유대학교

경력

Post Doctoral Researcher, UC-산타바바라



성 명 박상욱
 소 속 전자공학과
 메 일 spark2@gwnu.ac.kr
 연구실 033-640-2382
 임용년월 2022.3.

학력

학사 : 중앙대학교
 박사 : 고려대학교

경력

PostDoc Fellow, Johns Hopkins University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연구 활동 소개

음향신호분석은 소리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장소 또는 음향이벤트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deep learning을 활용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고 저는 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음향신호분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로써 1) 학습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semi-supervised learning, 2) 인간의 청각인지 특성을 모방한 biomimetic model, 3) deep network 분석 방법, 4) 데이터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balanced training 방법이 있습니다.



성 명 권민우
 소 속 전자공학과
 메 일 mwkwon@gwnu.ac.kr
 연구실 033-640-2381
 임용년월 2021.3.

학력

학사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석사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박사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경력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DRAM TD 연구원

연구 활동 소개

- 연구 분야 : 차세대 반도체 소자 시스템
- 지능형 반도체 소자 및 회로
- 차세대 로직 소자 및 메모리 소자를 활용하여 시냅스 소자 와 뉴런 회로를 구현

The slide is titled '연구 분야 소개' (Research Field Introduction) and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 01 Neuromorphic Devices**:
 - Artificial Neuron circuits: Includes circuit diagrams, mask layouts, and micrographs. Key achievement: 'FBFET를 활용한 초저전력 뉴런 회로 개발' (Development of ultra-low power neuron circuits using FBFET).
 - Synaptic Devices: Includes device structures, cross-sectional images, and graphs. Key achievement: 'RRAM based memristor 구조의 synapse 소자 개발' (Development of synapse devices with RRAM based memristor structure).
- 02 Spiking neural networks 구현** (Implementation):
 - Artificial Neural networks simulation: Shows a network diagram and a graph of firing rates. Key achievement: 'Spiking neural networks 구현' (Implementation of spiking neural networks).
- 03 Steep switching CMOS 소자 개발** (Development):
 - Structure diagram and TEM image: Shows the device structure and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 IV Fig. curve: Shows the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 Modeling: Shows the device model.
 - Fabrication process: Lists steps like lithography, etching, and deposition.



성 명 염상국
 소 속 토목공학과
 메 일 skyeom0401@gwnu.ac.kr
 연구실 033-640-2420
 임용년월 2021.3.

연구 활동 소개

- 건설관리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Digital Twins technology
- 자연재난 방재 기술 개발
- 도시방재 기술 개발
- 확률 기반 자연재난 예측 기술 개발
- 시설물 피해 금액 예측 기술 개발

학력

학사 : 충북대학교, 2011
 석사 : 美 Texas A&M University, 2013
 박사 : 美 Columbia University, 2019

경력

한양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2020-2021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2021



성 명 이미진
 소 속 음악학과
 메 일 mijinee@gwnu.ac.kr
 연구실 033-640-2519
 임용년월 2021.10.

연구 활동 소개

- 연구분야
 피아노연주
 음악교육
 클래식공연 소비자분석, 관객개발

학력

학사 : 한양대학교 피아노과
 석사 : New England Conservatory
 피아노전공
 Louisiana State University-Shreveport
 교육학전공
 박사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피아노 전공

경력

협성대학교 겸임교수



성 명 최진선
소 속 치위생학과
메 일 jicjs@gwnu.ac.kr
연구실 033-640-2472
임용년월 2021.3.

연구 활동 소개

- 연구 분야: 임상치위생학 및 임상치과학 분야, 예방치학 및 구강보건학 분야, 치과건강보험 분야, 치과의료커뮤니케이션 분야

학력

학사 : 여주대학교 치위생과 치위생학
석사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과 예방치학
박사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과 예방치학

경력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치의학과 강사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및 순천향대학교 부속 병원
치과위생사



성 명 이종빈
소 속 치의학과
메 일 periojbl333@gwnu.ac.kr
연구실 033-640-2446
임용년월 2021.3.

연구 활동 소개

전문분야

- 치주과학
- 임플란트학
- 통합치의학

연구 및 관심분야

- 치주학 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
- 임플란트학 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
- 디지털 치의학
- 의료 빅데이터 연구
- 딥러닝 기반의 질환 예방 및 진단 시스템 개발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석사 (치주과학)
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치주과학)

경력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강사 / 전임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임의사
-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병원 임상조교수



성 명 이 윤
 소 속 치의학과
 메 일 yoonlee@gwnu.ac.kr
 연구실 033-640-2471
 임용년월 2021.3.

연구 활동 소개

치주인대세포를 보존하는 저온고압보존법
 상아질 접착,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석사 : 연세대학교
 박사 : 연세대학교

경력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보존과 전공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치과보존과 조교수,
 부교수



성 명 오지현
 소 속 치의학과
 메 일 oms@gwnu.ac.kr
 연구실 033-640-2761
 임용년월 2021.9.

연구 활동 소개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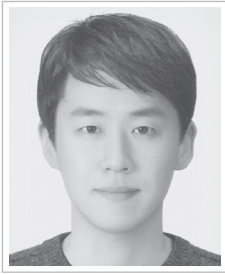
- 연조직 상처의 치유를 돕는 소재 개발
- 경조직 결손부의 골형성을 촉진하는 골이식재 및 소재 개발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경력

2012-201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2017~2019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임의
 2019~2022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임상교수



성명 홍민호
 소속 치의학과
 메일 mhong@gwnu.ac.kr
 연구실 033-640-2457
 임용년월 2021.9.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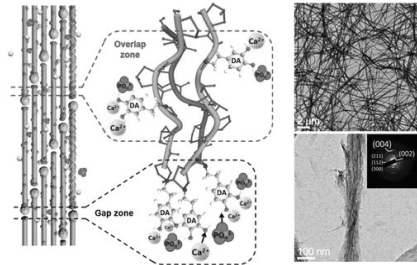
학사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세라믹공학과
 박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응용생명과학과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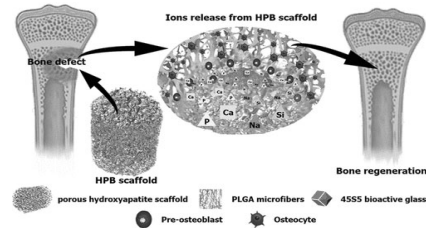
Research Professor (2018-2022)
 성균관대학교 성균융합원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2013-2014)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Visiting Researcher (2010)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연구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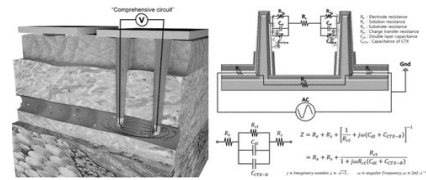
Biom mineralization Mechanism



Tissue Engineering



Biosensor



성명 이민혜
 소속 간호학과
 메일 leemh@gwnu.ac.kr
 연구실 -휴직-
 임용년월 2022.3.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석사 : 연세대학교
 박사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력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조교수

연구 활동 소개

저의 연구 영역은 만성질환 아동 및 발달 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가족의 건강 증진입니다. 최근에는 자폐 아동과 부모의 수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장애 관련 다학제 공동 연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성 명 조명선
 소 속 간호학
 메 일 mscho@gwnu.ac.kr
 연구실 033-760-8647
 임용년월 2022.3.

연구 활동 소개

지역사회간호는 개인, 가족,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개선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특히 취약집단의 건강문제와 건강불평등에 관심 많아 재난피해자, 독거 노인,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문제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학력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 서울대학교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경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성 명 이선영
 소 속 사회복지학과
 메 일 sylee@gwnu.ac.kr
 연구실 033-760-8867
 임용년월 2021.10.

연구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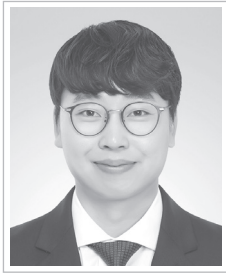
최근 복지정책 기조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로써 1)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의 연계 시스템 도입, 2) 복지 테크놀로지 기반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3) 복지 종사자의 기술 활용 및 기계와의 소통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학사 : 강남대학교
 석사 : Doshisha University(일본)
 박사 : Doshisha University(일본)

경력

조교수, 일본 히로시마현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 명 최민성
 소 속 자동차공학과
 메 일 mchoi@gwnu.ac.kr
 연구실 033-760-8762
 임용년월 2022.3.

학력

학사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경력

한국기계연구원 청정연료발전연구실
 박사후연구원

연구 활동 소개

- 고체 및 가스연료 혼합 연소 연구
 : Wall-fired 타입의 화력발전보일러 및 가스터빈 연소기의 배출물과 연소 특성 평가
 : PIV, ICCD 등 비접촉식 광학 계측 장치와 CFD 해석을 통해 다양한 화염 구조 및 연소 현상 상세 관찰
- 고효율/저공해 가스터빈 연소기 개발
 : 가스터빈 연소기 및 버너 설계, 최적화
 : OH 라디칼 측정 센서 개발
 : 사이클 해석 및 덤퍼닝을 활용한 가스터빈 성능 예측
- 양방향 구동 연료전지/수전해 시스템
 : BOP 성능 시험 결과 기반 사이클 해석 및 모듈화, SOFC/SOEC 스택 성능 평가
- CO₂-free 청정 수소 생산 및 활용 연구
 : 순산소 연소기와 열분해 반응기 설계 및 구축, 성능 평가(GC/SEM/Raman 분석 등)
 : CFD 해석을 활용, 다양한 운전 조건 평가



성 명 윤경수
 소 속 기계공학과
 메 일 ksyun@gwnu.ac.kr
 연구실 033-760-8748
 임용년월 2021.3.

학력

학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 KAIST 기계공학과
 박사 : KAIST 기계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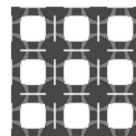
경력

국방과학연구소(ADD)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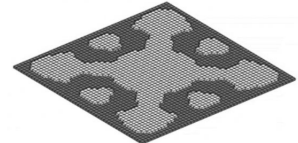
연구 활동 소개

- 연구 분야: 전산해석 및 최적설계
- 동적시스템 및 미세구조 위상최적설계
- 생체재료용 복합재료 설계/제작기술 개발
- 점탄성 재료 구성방정식 개발 및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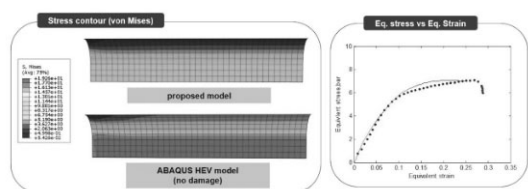
Design of viscoelastic composites



Topology optimization of damping layers



Constitutive modeling of solid propellants





성 명 허만섭
 소 속 교양기초교육본부
 메 일 episteme@gwnu.ac.kr
 연구실 033-640-2548
 임용년월 2022.3.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문과대 철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경력

동아일보 기자

연구 활동 소개

미디어 분야 논문

디지털시대 언론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변화
 신공화주의 논의를 통해 재상상하는 표현의 자유
 국내 언론의 출입처 의존과 뉴스의 심층성 문제
 언론중재제도의 국가기관 반론권 과보호 가능성
 문화자본론 관점에서 본 영화 <기생충>
 영화 <부당거래>를 통해 본 반영웅주의
 유튜브 채널과 TV 채널의 편향성에 대한 네
 트워크분석
 코로나19 확산 후 소셜미디어 활용과 무력
 감·외로움 체감에 관한 연구
 인터넷 심화 활용이 인터넷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Shame and vicarious shame in the news 외

커뮤니케이션 분야 논문

최고경영자의 품질경영 레토릭과 시청자 반응
 대통령 후보의 은유적 메시지에서의 판타시
 아(시각성)와 에나르케이아(생동감)
 수사적 대통령 요소의 한국 적용 가능성
 Presidential rhetoric of South Korea and the US
 Abused metaphors in political communication 외



성 명 이재용
 소 속 교양교육부
 메 일 jaeyong.lee@gwnu.ac.kr
 연구실 033-640-2546
 임용년월 2022.3.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
 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전공: 노동법)

경력

SK텔레콤주식회사 법무실·기조실·경영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연구 활동 소개

산업화시대에 탄생한 노동법이 제4차 산업혁
 명을 넘어 미래에 해야할 역할을 찾고자 합니
 다. 노동법은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
 자와 노동자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때문에 단체교섭, 조
 정·중재 등 분쟁조정외 통틀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교육부
 교수로서 사회에 진출할 우리 해람인들을 위해
 노동의 현실과 노동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현안이며 과제라
 고 생각합니다.



성 명 김치호
소 속 산학협력단
메 일 kimcho@gwnu.ac.kr
연구실 033-640-1601
임용년월 2021.3.

연구 활동 소개

- 연구분야 :
글로벌 경영 및 국제경영전략
창업
지역산업 정책 연구

학력

학사 :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석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력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지역경제학과 겸임교수



성 명 운재호
소 속 산학협력단
메 일 woon1744@gwnu.ac.kr
연구실 033-640-1676
임용년월 2021.9.

연구 활동 소개

농축수산물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상대국 기준규격 조사·연구, 방사선조사식품의 분석법 확립, 미래부 다부처 사업으로 방사능 오염 관련 과제 기획 및 연구사업 참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기획 연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주요 관심 분야로는 농·축·수산식품 관련 산업 현장의 장애(규제) 요인 발굴·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정책연구 등에 관한 것입니다.

학력

학사 : 전북대학교(수의학과)
석박사 : 전북대학교(예방수의학)
PostDoc Fellow, OKAYAMA University
객원연구원

경력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부이사관)
농식품부 유해물질검사과장(사무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유제품분과) 한국 대표



성 명 김태영
 소 속 산학협력단
 메 일 tykin7157@gwnu.ac.kr
 연구실 033-640-1698
 임용년월 2021.3.

학력

학사 : 동국대학교
 석사 : 동국대학교
 박사 : 국립 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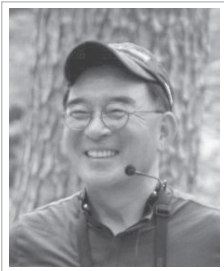
경력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 방문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부장, 연구단장 역임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 역임

연구 활동 소개

육지 4.4배인 해양영토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 해양신산업을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 ① 해양레저 핵심콘텐츠의 개발과 복합해양레저 관광거점도시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 ② 해양기반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권역별 해양바이오산업육성 거점구축
- ③ 4차산업혁명 진전 및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적응하는 해양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별 해양교육센터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성 명 김경래
 소 속 산학협력단
 메 일 bulmal@gwnu.ac.kr
 연구실 033-640-1678
 임용년월 2022.3.

학력

박사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력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강사
 산림기사

연구 활동 소개

- 연구 분야 : 산림치유, 농촌체유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 정년퇴임 교원소개 2021.2. ~ 2022.9.

순번	단과대학	학과	이름	퇴직년도	비고
1	인문대학	일본학과	박경수	2021.02.	정년퇴직
2	인문대학	철학과	이현모	2021.02.	정년퇴직
3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민남식	2021.02.	정년퇴직
4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김근중	2021.02.	정년퇴직
5	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	함석종	2021.02.	정년퇴직
6	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	김경숙	2021.02.	정년퇴직
7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조정곤	2021.02.	정년퇴직
8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고정미	2021.02.	명예퇴직
9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김순귀	2021.02.	정년퇴직
10	생명과학대학	생물학과	전방욱	2021.02.	정년퇴직
11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전덕수	2021.02.	정년퇴직
12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장영순	2021.02.	정년퇴직
13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이경숙	2021.02.	명예퇴직
14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김인교	2021.02.	정년퇴직
15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양문규	2021.08.	정년퇴직
16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박형라	2021.08.	정년퇴직
17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이동찬	2021.08.	정년퇴직
18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김도원	2021.08.	명예퇴직
19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김동기	2021.08.	명예퇴직
20	치과대학	치의학과	이중배	2021.08.	정년퇴직
21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소애영	2021.08.	정년퇴직
22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김용구	2022.02.	명예퇴직

순번	단과대학	학과	이름	퇴직년도	비고
23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유병진	2022.02.	정년퇴직
24	공과대학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윤상옥	2022.02.	정년퇴직
25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최현숙	2022.02.	정년퇴직
26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이복희	2022.02.	정년퇴직
27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조규권	2022.02.	정년퇴직
28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나정숙	2022.02.	정년퇴직
29	과학기술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엄완섭	2022.02.	정년퇴직
30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장정룡	2022.08.	정년퇴직
31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이영규	2022.08.	정년퇴직
32	자연과학대학	대기환경과학과	이규태	2022.08.	정년퇴직
33	자연과학대학	대기환경과학과	이재규	2022.08.	정년퇴직
34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윤재선	2022.08.	정년퇴직
35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김용찬	2022.08.	정년퇴직
36	생명과학대학	해양생태환경학과	김형근	2022.08.	정년퇴직
37	생명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	박용진	2022.08.	정년퇴직
38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주명희	2022.08.	정년퇴직
39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박수자	2022.08.	명예퇴직
40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서길희	2022.08.	정년퇴직
41	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공학과	박동영	2022.08.	정년퇴직

교수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 축하드립니다.

교수 동정

2021.3. ~ 2022.9.

- ◎ 컴퓨터공학과 강태원 교수, 저서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학술도서’ 선정
- ◎ 해양생명과학과 김길중 교수, (사)한국발생생물학회 제26대 회장 선출
- ◎ 치과대학 박덕영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 관광경영학과 이재석 교수,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021 Best Article’ 수상
- ◎ 해양생명과학과 주성수 교수 연구팀, 야생 미나리로부터 “신규 항바이러스 단백질(OPRP)” 규명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2022 수력양수발전 학술컨퍼런스 논문상
- ◎ 토목공학과 이승우 교수, Proceedings of ICE Transport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Rees Jeffreys Prize (Highways Prize) 수상
- ◎ 식품영양학과 김현자 교수팀, 2022년 한국임상영양학회 하계 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2022년 (사)전력계통보호제어연구회 논문상 수상
- ◎ 패션디자인학과 엄소희 교수팀, 2022년 (사)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 ◎ 다문화학과 황병수 교수, 제41회 스승의 날 한국교총 회장 표창(특별공로상) 수상
- ◎ 환경조경학과 김태경 교수,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선출
- ◎ 패션디자인학과 김용문 교수, ‘2022 한복문화 진흥 유공자 시상식’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장상 수상
- ◎ 컴퓨터공학과 김영태 교수, 기상청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의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상
-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 법령정비 등 법 제도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 ◎ 환경조경학과 염정현 교수팀, 2021년 (사)한국환경과학회(KENSS) 정기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 ◎ 치과대학 차봉근 교수, 저서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학술도서’ 및 ‘2021 텐트포토 추천도서’ 선정
- ◎ 과학기술대학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2021년 제52회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상」, 「8월 호 우수논문상」 수상
- ◎ 생물학과 민경원 교수 연구팀, 암세포의 특이적 당대사를 조절하는 메커니즘 규명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2021년 (사)전력계통보호제어 연구회 논문상 수상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APAP2021 「Best Paper Award」 2편 수상
- ◎ 중어중문학과 홍영희 교수, 제 50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우승
- ◎ 기계공학과 박찬일 교수, SCIE 등재지 JMST 「우수논문상」 수상
- ◎ 전기공학과 김종겸 교수, 전기학회 펠로우 회원 승격

- ◎ 치위생학과 배수명 교수, 한국치위생과학회 주최 「학술상」 수상
- ◎ 치과대학 이재관 교수, 2021년 대한치주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 패션디자인학과 엄소희 교수팀, 2021 (사)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 ◎ 치과대학 김민근 교수, 제31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2021년 KIIIE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발표상」 수상
- ◎ 강릉원주대학교 박병선 교수 연구팀,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업' 선정
- ◎ 기계공학과 박찬일 교수, 제20회 기계의 날 <올해의 기계인> 수상
- ◎ 관광경영학과 강상국 교수팀, '제90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대학생 공모전' 수상
- ◎ 중어중문학과 김만원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 치과대학 마득상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 환경조경학과 염정현 교수, 2021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습지/철새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 수상
- ◎ 다문화학과 황병수 교수, 제40회 스승의 날 한국교총 회장 표창(특별공로상) 수상
- ◎ 치과대학 정세환 학장, 보건복지부 표창 수상
- ◎ 패션디자인학과 엄소희 교수팀, 2021 (사)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 ◎ 사회과학대학 김천영 학장,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 초대 공동회장 선출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2021년도 (사)전력계통보호제어연구회 논문상 수상
- ◎ 해양식품공학과 신일식 교수,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장 선출
- ◎ 기계공학과 박찬일 교수,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펠로우 회원 추대
- ◎ 해양생물공학과 이상민 교수, (사)한국수산과학회 회장 선출

교수회 활동

2021.01. ~ 2022.9.

1. 평의회 개최

- 1) 제3-9차 교수평의회(2021.01.18.)
 - 보직교수 임명동의건
 - 김근중 교수 관련, 국가 행정소송 비용 지출 및 미회수 현황 건
 - 규정심의건
 - 대학평의회 교원의원 선출 건

- 2) 제3-10차 교수평의회(2021.01.25.)
 -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
 -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전부 개정(안) 중 제2절 교수회 검토 건
 - 강릉원주대학교 점임교원 연구년 및 장기해외파견 규정 제정(안)

- 3) 제3-11차 교수평의회(2021.02.24.)
 - 강릉원주대학교 부속시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건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검토서 논의

- 4) 제3-12차 교수평의회(2021.04.21.)
 - 제4대 교수회 임원 선출을 위한 임원선출위원회 구성 건

- 5) 제3-13차 교수평의회(2021.08.04.)
 - 입학정원 모집정지 건
 - 제4대 교수회 임원(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출위원회 구성 건

- 6) 제3-14차 교수평의회(2021.08.11.)
 - 입학정원 모집정지 건

- 7) 제3-15차 교수평의회(2021.09.08.)
 - 체육학과 평의회 녹취파일 요청 건
 - 입학과 학생선발과정 관련 교수회 자체조사 실시 건
 -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 8) 제4-1차 교수평의회(2021.10.20.)
 - 사무처장 및 정책국장 선임 건
 - 정책·소통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호선
- 감사 선임
- 재정위원회 위원 추천
- 대학평의원회 교원위원 선출

9) 제4-2차 교수평의원회(2021.11.17.)

- 교수회의 규정 심의 절차에 관한 건
- 신입생 충원을 개선 방안에 관한 건

10) 제4-3차 교수평의원회(2022.01.12.)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11) 제4-4차 교수평의원회(2022.02.16.)

- 보직 교수 임명 동의 건
- 2023학년도 모집 정원 감축 방안

12) 제4-5차 교수평의원회(2022.04.20.)

- 교수평의원 자격과 선출 조항 개정

13) 제4-6차 교수평의원회(2022.06.08.)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3조 평의원의 자격과 선출 조항 개정(안)

14) 제4-7차 교수평의원회(2022.06.15.)

- 보직교수 임명동의건

15) 제4-8차 교수평의원회(2022.08.11.)

- 보직교수 임명동의건

2. 국교련, 지교련 활동

1) 지교련 회장단 회의(2021.01.22. 한밭대학교)

- 정책과제 발표회 및 질의 응답
- 지교련 발전방향 논의

2) 지교련/국중련 총장협의회회장과 정책회의(2021.02.02. 한밭대학교)

- 지교련/국중련 총장협의회 회장(한밭대 총장)과의 정책회의

- 3) 국교련 정기총회(2021.02.26, Zoom 회의)
 - 제24대 국교련 상임회장 추인
 - 국립대학법률안 진행 사항
- 4) 지교련 정기총회(2021.02.26, Zoom 회의)
 - 지교련 발전방안 논의
- 5)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1.03.26, Zoom 회의)
 - 2021년 예산안
 - 국교련 상임회장 선거규정 검토
 - 총장 선거 한반 소원 대응
 - 공동회장교 및 감사 선출
- 6)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1.04.30, 제주대학교)
 - 국립대학법안 국교련 의견 수렴
 - 미얀마 사태
 - 램지어 교수 건
 - 국공립대통폐합 관련 토론회 개최 건
 - 국교조 진행사항 등
- 7)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1.06.18, 경상국립대학교)
 -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사전회의
 - 신규 회장단과의 상견례
- 8)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1.08.24, Zoom 회의)
 -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건
 - 교연비 제도 개선 관련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위원회
 - 역대 정부의 고등정책과 국립대 대응방안
 - 헌법소송 대리인 발언
- 9) 국교련 긴급임시회의(2021.08.26, Zoom 회의)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2호 개정과 관련한 개정법안
- 10)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1.09.10, Zoom 회의)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2호 개정 관련 대책논의
- 11)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1.10.22,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
- 12)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1.11.26, Zoom 회의)
 - 교연비제도 개선
 - 대선후보와의 MOU체결 관련

- 13) 국교련 임시 회장단 회의(2021.12.1. Zoom 회의)
 - 교육공무원법 관련 토론
 - 상임회장 선거 규정 논의
 - 국립대학의 비전 및 국교련과 대선 후보 MOU체결 제안서 작성 검토
- 14) 국교련 임시총회(2022.01.07. Zoom 회의)
 - 교상임회장 선출 규정 제정
 - 국교련 회칙 개정
- 15)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2.01.20. 제주대학교)
 - 2022년도 국교련 주요 사업 및 발전 방안
 - 정책위원회 활동 보고
- 16)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2.02.18. Zoom 회의)
 - 제25대 상임회장 추인에 관한 건
 -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회칙 제7조 제2항 개정에 관한 건
- 17)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2.03.25. 금오공과대학교)
 - 국교련 회칙 재정
 - 제25대 국교련 공동회장 및 정책위원장 위촉
- 18) 국교련 임시총회(2022.03.25. 금오공과대학교)
 - 2022년 예산(안) 심의
 - 2022년 핵심 사업 논의
- 19)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2.04.22. Zoom 회의)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연간활동 계획
 - 대학운영 자율화(총장선거 교원 참여 비율)
 - 2022년 회비 납부액 조정
 - 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 20)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2.05.20. 서울시립대학교)
 -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권익위, 교육위원회 등 활동 공유 및 향후 방향성 논의
- 21)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2.06.24. 한국해양대학교)
 - 국립대학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 교원보수체계 정상화를 위한 국교조 연대 강화
 - 총장선출제도 변경에 따른 회원교 현안 공유 및 대책
 -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논의
- 22) 국교련-국교조 정책협의회(2022.07.20. 경북대학교)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 국립대학법 시행령(안)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 23) 국교련 회장단 회의(2022.09.23. 전남대학교)
 - 교육공무원법 헌법소원 답변서 의견 검토
 - 고등교육법 제5조 폐지

<공개 질의> 1

학과 구조조정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교수회는 ‘소통하는 교수회’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학의 주요 정보와 전략이 구성원들 간에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교수님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정리하여 본부에 질의하고, 본부의 답변을 교수님들과 공유하는 <공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학 통합, 5% 모집정지, 신입생 미달사태, 충원을 관리 방안 등 시급하게 질문할 내용이 많지만, 첫 번째 <공개 질의>의 주제는 ‘학과 구조조정’으로 정했습니다.

(질문의 배경)

무엇보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본역량진단평가, 국립대육성사업, 혁신지원사업 등의 국책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학 본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작년 입시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구성원 모두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열린 교무회의에서는 강제 구조조정 조치 내용이 담긴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중심에는 충원율이 있습니다. 이에 교수회의 <공개 질의>는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 본부의 지난 1년간의 노력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 (질문 1-1) 큰 폭의 입학자원 감소가 예상된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본부의 노력이 궁금합니다. 입학본부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입시 업무 이외에, 신입생 충원율 개선을 위해 대학 본부가 추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1-2) 교수회가 본부에 검토를 요청한 규정 심의 의견에 대해 대학 본부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어야 합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대학 본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당사자인 교수회에 피드백하지 않는다면 교수회의 심의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교무회의에서 통과된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은 2021년 5월 13일 교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당시 교수회는 본 규정 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 11조 (구조개혁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5개 의견에 대한 검토를 대학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 본부로부터 이들 의견에 대한 어떠한 검토 결과도 회신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시 교수회가 제출한 심의 의견을 본부에서 검토했던 과정과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1-3)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모집단위조정)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 18명 미만)이거나 (모집단위의 최근 2년 평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80% 미만)인 경우 모집단위 조정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과가 몇 개가 되는지와 만약 이들 학과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폐지를 결정할 것인지, 구조조정의 일정표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와 학과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책임 또한 나눠서 져야 합니다.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학과에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알려 주시면, 교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수회의 <공개 질의>가 구성원 간에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되고, 상호 신뢰가 쌓이는 좋은 소통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11.10.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수회 <공개질의>1에 대한 본부 답변

(Q 1-1) 큰 폭의 입학자원 감소가 예상된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본부의 노력이 궁금합니다. 입학본부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입시 업무 이외에, 신입생 충원율 개선을 위해 대학 본부가 추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1-1) 신입생 미충원은 학생 등록금 감소, 학교 대외평판 악화,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 중단초래 등 대학에 직·간접적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신입생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 입학본부 자체로도 고교방문 및 수험생 대상 홍보 매체 신설(YOUTUBE, EBS교재)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신입생 충원율은 학령인구 대비 대학입학정원 초과현상, 수험생 수도권 대학 지원 쏠림현상 등 구조적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협력처에서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여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경쟁력있는 학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학과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정원을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탄력정원제 실시를 통해 다가오는 2024년 학령인구 급감위기를 헤쳐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1-2) 교수회가 본부에 검토를 요청한 규정 심의 의견에 대해 대학 본부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어야 합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대학 본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당사자인 교수회에 피드백하지 않는다면 교수회의 심의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교무회의에서 통과된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은 2021년 5월 13일 교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당시 교수회는 본 규정 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11조(구조개혁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5개 의견에 대한 검토를 대학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 본부로부터 이들 의견에 대한 어떠한 검토 결과도 회신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시 교수회가 제출한 심의 의견을 본부에서 검토했던 과정과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1-2)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은 지난 4월 19일 전체 학과 교수 1명씩으로 구성된 학사구조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쳤고, 이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학내 구성원 대상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3일 교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입법 예고시 교수회에서 의견 제시한 5개 내용을 검토하였고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회의자료로 상정하여 10월 20일 와 11월 2일 교무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5월 13일 교수회 심의 이후 후속 절차인 규정심의위원회, 교무회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3주기 기본역량진단 결과발표에 따라 교육부 주도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역량진단 최종 결과발표 이후로 동 규정 제정 절차를 유보하며 결과를 기다렸고 3주기 기본역량진단 최종 통과 통보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5월 13일 교수회 심의 내용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교수회 요청의견은 입법예고시 접수된 검토의견을 기획협력처는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회 심의시 검토 의견 자료와 함께 상정하여 최종 심의 논의자료로 활용합니다. 교수회에서 요청한 5개 의견은 검토 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교수회의 심의절차를 요식행위로 생각한 것이 아닌 교수회에서 심의 의결로(전반적 동의) 결과가 회신된 것으로 판단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한편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수회 소속 위원을 위촉하여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교수회를 비롯한 교수 개개인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결과를 회신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교수회에서 요청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그 결과를 교수회에 송부하여 대학본부와 교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칙 제28조(교수회) 제5항은 교수회의 심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칙, 규정, 시행세칙은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릉원주대학교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9조(심의요청) 제1항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한 학칙, 규정, 시행세칙은 입안부서에서 교수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교수회 심의 결과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칙에 명시한 심의 사항과 규정에서 명시한 심의 요청 사항에 충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현재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1-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 18명 미만이거나 모집단위의 최근 2년 평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80% 미만인 경우 모집단위 조정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과가 몇 개가 되는지와 만약 이들 학과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폐지를 결정할 것인지, 구조조정의 일정표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1-3)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과 대상인 학과는 1개 학과(물리)로 최근 2년 평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68%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 18명인 독어독문학과는 입학정원이 1명 감축시 폐과 대상으로 진입하게 되며, 제1항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모집단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사구조혁신위원회에서 폐과를 심의하고 이후 교무회 심의를 통해 폐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학과에서 폐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며 이때 폐과 재심의 의결은 학사구조혁신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교수회 <공개 질의> 1에 대한 대학 본부 답변 전체 교수님과 공유

존경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께 공유해 드렸던 첫 번째 <공개 질의>에 대한 본부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신속하게 답변을 보내 주신 대학 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신입생 충원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일부 답변의 경우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학과 통폐합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답변에서는 신입생 미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치밀한 전략도 없었고, 꼭 추진했어야 할 과업도 소홀히 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제4-2차 교수평의회에서는 <신입생 충원율제고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겠습니다.

<교수회 요청 사항>

1. 충원율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핵심과제 도출, 이행 점검을 전담할 총장 직속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2. 학과 필요 예산 및 인력 지원, 학과별 홈페이지 내실화 등을 통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보 제공 및 관리 강화
3.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더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본부와 학과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책임 또한 나눠서 져야 합니다. 앞으로 교수회는 소통은 물론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11.2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공개 질의〉 2

대학 통합

교수회는 ‘공개 질의’를 통해 교수님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본부에 질의하고, 본부의 답변을 교수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강원대와의 통합에 대한 소식을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계십니다. 통합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두 번째 〈공개 질의〉의 주제는 강원대와의 통합으로 정했습니다.

(질문의 배경)

우리 대학과 강원대는 지난 2월 말 ‘1도 1 국립대학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대학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권 1도 1 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협력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대학이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도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9월 말에 연구용역 결과를 양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10월 18일 대외비 조건으로 교수회에 책자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전달했고, 11월 17일부터는 결과보고서의 요약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해람인의 e-참뿔’과 ‘행정문서자료실’을 통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학 간의 통합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된 정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 수렴 절차는 신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 접수 후 2달 만에 학생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동영상의 조회 수는 아직 130여 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조회 수가 저조한 이유는 통합에 대한 낮은 관심도 때문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은 정보 공유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개 질의〉에서는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 (질문)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현재 우리 대학에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TF 팀을 구성했거나, 강원대와 함께 ‘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조직을 이미 구성했다면 조직의 구성원과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본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업무와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학 간 통합 등 대학의 주요 소식을 언론이 아닌 본부를 통해 먼저 접할 수 있도록 소통에 더욱 힘써주시길 요청합니다. 교수회 또한 대학 통합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2021.12.08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공개 질의> 3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대학 운영 비상 계획

교수회는 ‘공개 질의’를 통해 교수님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본부에 질의하고, 본부의 답변을 교수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대학의 대응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대학이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세 번째 <공개 질의>의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대학 운영 컨틴전시 플랜’으로 정했습니다.

(질문의 배경)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주기 평가, 국립대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학 본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2019년 97.5%에서 코로나19 발생 1년이 경과 된 2021년 상반기에 93.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 멈춤’의 여파가 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는 물론 우리 대학에 계속 다닐 것인가의 결정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교류하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경험’의 질이 충원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합니다. 혁신 대학으로 주목받는 미네르바 대학은 처장급의 최고경험관리자 (Chief Experience Officer)를 두고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경험’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비상 멈춤’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든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위기상황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개 질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대학 생활 재설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2022학년도 입학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 (질문 3-1) 대학 본부가 구상하고 있는 2022학년도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인상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신입생들의 경우 대학과의 첫 만남은 입학식과 신입생 OT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대학은 부득이하게 입학식을 취소하고, 신입생 OT는 학과별로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순천향대를 포함하여 대학은 메타버스에서 입학식을 개최하였고, 강원대는 메타버스에 구축한 가상 캠퍼스에서 신입생 OT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오는 3월 초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팬데믹 상황과 관계없이 신입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질문 3-2) 재학생 충원율은 ‘경험’의 함수입니다. 학습 경험, 활동 경험, 인간관계 경험, 몰입 경험 등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비상 멈춤’으로 불가피하게 경험의 기회가 줄어든 것은 재학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의 추이와 대학 본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3-3) 2022학년도 봄 학기 대학 본부에서 수립한 코로나19 상황별 ‘대학 운영 비상 계획’을 수업 운영, 학생 지도, 동아리 지원, 축제, 학생 자치 활동 지원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본부가 수립한 ‘대학 운영 비상 계획’을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청’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본 <공개 질의>가 2022학년도 대학 본부의 대학 운영 전략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01.1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수회 <공개질의> 3에 대한 본부 답변

교수회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의하신 2022학년도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처에서 입학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중요 내용을 동영상 제작 후에 온라인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오리엔테이션은 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 18일 교무회의에 보고하고 교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공문으로 교수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 재학생 충원을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입학 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1월 18일에 기획처에서 교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처장이 직접 강릉과 원주캠퍼스에서 학사구조개혁위원회 위원님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일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2022학년도 봄학기 수업운영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방안이 준비되었는데 전면적인 대면수업을 진행 하되 상황이 악화되면 하이브리드 수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수님이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업을 대신하는 수업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캠퍼스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도 역시 1월 18일 교무회의에 보고후 공문을 시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학생 지도, 동아리 지원, 축제, 학생 자치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학생회와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 학생회와의 논의 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그때 교수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교무회의에서는 교수회에서 질의하신 내용들 대부분이 다루어질 계획이니 교수회에서도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문으로 전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4일

교수회 <공개 질의> 3에 대한 대학 본부 답변 전체 교수님과 공유

존경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공개 질의>에 대학 본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 본부로부터 전달받은 답변 내용을 수정 없이 교수님들께 전달 드립니다.

대학 운영에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신속한 답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재학생 만족도 추이에 관한 답변이 누락되었고, 대학 운영 비상 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우리 대학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대학 신입생들에게 입학식과 OT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본부 차원의 참신한 기획과 세심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은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공개 질의>에서는 어떠한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대학 본부에 직접 질의하고, 그 답변을 전체 교수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소통, 폭넓은 소통이 가능하며,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소통 부족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개 질의> 프로세스



〈공개 질의〉 프로세스에서 보시듯이 본 〈공개 질의〉는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질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수회 또한 소통은 물론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01.18.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공개 질의〉 4

충원율과 취업률 등 핵심 성과 지표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의 배경)

지난 1월 말 기획평가과에서 주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이 하위권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우리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표) 우리 대학 핵심 성과 지표 값 및 타 대학 비교 순위

항목	지표 값 ('21.4.1 기준)	비수도권 대학 대비 순위	대경강원권 순위
신입생 충원율	92.7%	64/115	15/19
재학생 충원율	93.5%	59/115	13/19
취업률	53.5%	66/115	13/19

* 기획평가과의 설명회 자료에서 발췌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모집 정원의 일부를 감축해야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지표 관리가 부실하여 우리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총 18개교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학과에 있다는 인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별 학과는 성과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도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작년 한 해에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충원율과 취업률 등 현재 문제가 되는 성과 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대학 본부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최우수’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비를 받은들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대학이 직면한 위기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바 크지만, 핵심 성과 지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우리 내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본 <공개 질의>에서는 지난 상황을 되돌아보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 (질문 4-1)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과 같은 대학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2021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된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성과 지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학 본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4-2) 대학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주체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대학 본부가 학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4-3) 올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대학 본부의 전략에 대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핵심 성과 지표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지표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 본부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본부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학과의 협조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본 <공개 질의>가 대학 본부의 리더십과 학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1년 후 개선된 성과 지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2022.02.09.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공개 질의〉 5

2023년 모집 정원 감축에 관하여

지난 2월 10일 학사구조혁신위원회에서 우리 대학의 모집 정원을 160명 감축하고 2개 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하게 이뤄지는 본 〈공개 질의〉에서는 대학 본부에서 추진 중인 2023학년도 모집 정원 160명 감축이 과연 적절한 규모인지에 관해 질의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배경)

교육부는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2021.12.29.)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편성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작년 입시에서 미달이 발생한 대학 : 미달 인원의 90% 이상 감축 권고
 - 우리 대학의 경우 작년에 133명이 미달 되었고, 이의 90%에 해당하는 120명 이상을 필수로 감축해야 함
 - 대학별로 미달 됐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감축 인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이 133명을 감축하는 경우 지원금은 약 1.3억 원임
2. 작년 입시에서 미달이 발생하지 않은 대학 또는 미달 인원의 100% 이상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대학 : 적정규모화 지원금에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
3. 대학별로 2023년 모집 정원 감축 규모를 확정하여 오는 3월 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2024년과 2025년 입시에 대한 모집 정원 감축 계획은 2022년 5월까지 교육부에 제출

한번 감축한 인원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이라 하더라도 감축 인원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절한 감축 인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입시 결과를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당근으로 내건 적정규모화 지원금 때문에 선발 가능한 인원까지 과도하게 감축하는 것은 대학의 미래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 입학과 자료에 따르면, 정시 최초 등록 마감 시점인 2월 11일의 신입생 충원율은 88.14%로 작년 84.44%보다 3.7%포인트가량 높고, 재작년 신입생 충원율 89.45%보다는 1.31%포인트 낮습니다.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으나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작년보다는 높고, 재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등록이 마무리되는 2022년 2월 21일(추가 모집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진행) 이후 미달 예상인원이 구체화 된 시점에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제적 감축으로 얻게 되는 인센티브에 비해 손실이 훨씬 클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교육부의 권고에 맞춘 120명 감축이 훨씬 합리적 선택입니다. 160명 감축, 즉 40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등록금을 400만 원으로 추산했을 때 재정 손실 규모는 처음 3년 누적 금액이 9.6억 원이고, 4년 차 이후부터는 매년 6.4억 원 정도씩 지속해서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 (질문 5-1) 교육부는 대학별로 작년 미달 인원에서 최소 90% 이상을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작년 미달 인원이 133명인 우리 대학은 최소 120명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대학 본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2023학년도 우리 대학의 감축 최소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본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감축 최소 인원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질문 5-2) 이번에 감축하는 인원은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정원을 감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학의 적정한 모집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입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2월 21일에 마무리되는 정시 모집 결과를 예년의 자료와 비교하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미달 인원의 예상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올해 입시 결과를 보고 감축 인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5-3) 대학에서 준비한 탄력정원제, 교육부가 제시한 3년간의 감축 인원 배분, 모집 유보 등을 활용하면 다양한 감축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본부가 검토했던 감축 전략과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 조정과 모집 정원 감축은 우리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본 <공개 질의>를 통해 모집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논의되고 공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2.02.15.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대학평의위원회 요구서

2023학년도 모집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대학 본부는 여러 구성원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본부의 의도대로 모집정원 153명을 감축했다.

여러 구성원들이 우려한 바대로 우리 대학의 감축 규모는 타 대학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과 올해 입시에서 우리 대학보다 훨씬 많은 미충원 인원을 낸 목포대의 경우 106명, 안동대의 경우 41명, 순천대의 경우 20명만을 감축했다.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군산대조차도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150명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

본부의 모집정원 감축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신뢰성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다.

첫째, 신뢰성의 문제다. 감축 규모를 결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학 본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 지난 1월 24일 원주캠퍼스, 25일 강릉캠퍼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기획처장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적정규모화> 계획을 소개하면서, 2021년 미충원 인원의 90%를 '강제'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90% 감축이 최저기준선이라고 오해한 구성원들은 이후 어떠한 논의에서도 타 대학과 같은 41명 감축, 20명 감축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도 논의할 수 없게 하였다.
- 2월 10일 160명 감축을 결정한 학사구조혁신위원회에서 기획평가과가 위원들에게 제시한 감축 규모의 예시를 보면 (133명+알파)를 최저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감축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 결정 선택권을 침해한 중대한 잘못이고, 위원들에게 본부가 의도한 선택을 강요하여 대학의 운영 및 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둘째, 소통의 문제로 교수회가 책임자 면담,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여러 단계를 통해 본부에 전달했지만, 본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교수회의 긴급 <공개 질의>,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60명 감축 규모가 과도하다는 교수회 서한문 등을 본부와 공유하였으나 본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 대학평의위원회에서 논의된 타 대학의 감축 규모 반영, 2022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감축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견,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의견 등 여러 합리적인 대안 등도 검토하지 않고 결정을 밀어붙였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다. 본부는 153명 모집정원 감축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이후에 대학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대학의 최종심의 기구인 대학평의회의 심의 절차를 요식 행위로 만들었다.

모집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대학 본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의도했던 실수든 훼손된 절차와 부정확한 정보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그것의 정당성까지 훼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평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대학 본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타 대학과 비교하여 과도한 감축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성의 문제, 소통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대학 본부는 책임지는 자세로 구성원에게 이해를 구하라.
2. 교육부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을 뒤늦게 대학평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대학평의회의 심의를 요식 행위로 만든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3. 이번에 결정한 모집정원 감축으로 인해 대학 구성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을 구성원에게 약속하라.
4.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의 부실한 관리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대학 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 지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번 모집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진단해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2.04.28.

강릉원주대학교 대학평의회

<대학평의원회 요구서>에 대한 본부 답변

친애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학은 더 이상의 입학정원유지 전략에 한계를 맞으면서 치열한 학생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학자원 경색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우리 대학 고유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나,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제공되면서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2~3년이면 닥칠 생존경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생존 방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시간이 촉박한 문제로 인해 구성원들과의 공감을 충분하게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생존의 절실함을 단과대학 설명회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다양한 접근으로 자료제공을 통해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감축에 대한 적정한 규모와 방법, 절차에 대한 구성원의 각기 다른 해석과 오해 등이 야기되었고, 그에 대한 구성원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기에 대학평의원회의 요구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① 강제감축이 아님에도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② 연도별 감축 시나리오를 논의할 수 없게 했고, ③ 133명+ α 라는 최저 감축선을 제시하여 의사결정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 선택을 강요하여 대학 발전에 위험적 피해를 초래.

인구감소로 인한 시대적 난제인 입학자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맞물리면서 공간을 채우기가 버거운 재정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고, 대학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 외부자금 유치가 돌파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아니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은 대학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규모를 두고 여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적 교육환경 변화에 자생적 대처 능력을 찾기 위한 시발점으로써 구성원에게 위기를 알리고 대응하자는 취지와 예견될 수 있는 학생감소 상황을 분석하여 우리 나름의 전략적 대비 태세를 갖추자는 취지였음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① 정원감축 관련 자료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화 정책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사실을 기반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표 자료를 제공한 기획처장으로서 교육부의 의도와 각 대학이 마주친 재정적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원감축은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했고, 미충원 인원의 90%를 강제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학 소식 전문 언론사의 입학정원 감축 관련 헤드라인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대학가·교육부, “文 정부, 정원감축 자율기조 포기다, 아니다” 공방 대학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연계, 강제나 마찬가지로”, 교육부 “대학 정하는 정원감축 기준 여전” 정원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이 ‘권고’이지, 정원감축을 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을 끊겠다는 조치는 한국 사립대학 재정적 현실에서 보면 사실상 강제적 조치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해 온 방식과 다르지 않다 출처 : Usline(유스라인)(http://www.usline.kr)</p>
<p>[이슈 파헤치기] 교육부 “자율적 대학 정원감축” “구조개혁 폐지”한다지만… 독자들을 위해 결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의 자율화’ ‘구조개혁평가 폐지’는 사실상 눈속임이다. 교육부는 ‘강제’의 반대말이 ‘자율’인 것처럼 포장하며, ‘강제 정원감축’ 기조를 폐지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은 ‘강제’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반(半)강제’ 전략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news.unn.net)</p>
<p>정원 감축, 폐교·청산 등 대학 구조조정 내년부터 본격화 권역별 유지충원을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 받는다. 정원 감축 미 이행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강제적인 정원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p>

② 인원 감축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감축 방법은 23학년도 일괄 감축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확한 감축 인원을 산정한다는 것은 어렵기에 일반적인 경향성과 개연성을 두고 산정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감축 규모를 두고 긍정평가도 부정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입학정원 감축은 다른 대학과의 레이싱이 아니라 우리 대학만의 마라톤을 해야 합니다. 타 대학의 감축 인원이 우리 대학보다 작다 하여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대학만의 완주작전과 전략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학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기본역량진단평가준비가 최우선과제이어야 합니다. 탈락으로 인한 연쇄적인 부작용과 신입생 모집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정원감축이라는 생존 해법을 찾아야 했고, 점진적인 정원감축은 평가대비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기에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2~’24년도 신입생 충원을 지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 깔린 선택이었습니다. 노력과 아픔을 투입하여 밀 빠진(푹린)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시작단계에서 보수하고 물을 가득 채우자는 선제적 대응전략입니다. 그리고 ’24년 새로운 대학 집행부에게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도 일부 있었습니다.

③ 학사구조혁신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원감축의 취지와 자료 분석결과 감축 방법과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 설명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제출된 133+ α 의안의 철회 요구 및 수정안(수정동의) 제시가 있었다면 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수정안 제시가 없었기에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원감축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묻기에는 구성원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지만, 다양한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 끝에 결정(찬성 28:반대 15, 기권1)된 사항입니다. 비록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회의 말미에는 현재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현행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은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원감축이라는 예민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학사구조혁신위원 나름의 심적 부담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기에 53명의 위원회 결정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각을 달리해서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대처를 누구의 잘못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④ 교수회는 타 대학의 감축 규모 반영, ⑤ '22학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감축 규모를 결정 책임자 면담, ⑥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여러 합리적인 대안 등도 검토하지 않고 교수회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반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도 모두를 공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이 되어야 하고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파악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 차례 교수회장과의 면담은 있었지만 정원감축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회의 의도성이 짙은 의견수렴 결과가 신뢰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학사구조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그들의 합의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행정적·절차적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④ 대학평의원회 요구서에는 앞뒤 맥락을 모두 거르고, '목포대 106명, 안동대 41명, 순천대 20명만을 감축했고 군산대는 3년간 150명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구성원에게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공한다면 이 요구서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학 대표기구로서 정확한 정보를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오판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국가중심 국립대학의 입학감축 현황을 보면, 군산대는 총장 부재(발령,3.17)로 '23학년도 감축 인원을 결정할 수 없었고, 최근 기본역량진단평가 재진입 평가(22.5.3) 이후 52명을 우선 감축하고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결정한다고 합니다. 목포대는 규정에 따른 산출인원은 106명이고 이를 '23학년도에 일괄 감축, 그 이유는 차기 보직자에 감축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순천대의 경우 '23학년도는 규정에 따라 20명 감축으로 이전에 결정해 놓았고, '24~'25학년도는 98명을 놓고 교수회 심의 중입니다. 안동대는 선제적으로 86명을 이미 감축했고 '24~'25학년도는 117명 총 203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표 1. 주요 국가 중심대학 21~25년 입학정원 감축 현황 ('22.5.10. 기준)

대학명	'21		'22			'23	'22~'25	비고
	입학정원	미충원인원	입학정원	모집인원	미충원인원 ²⁾	감축정원 ¹⁾	총감축인원 ¹⁾	
강릉원주대	1,833	133 (7.2%)	1,833	1,745 (▽88명)	26 (1.5%)	153 (8.3%)	153 (8.35%)	
군산대	1,735	235 (13.5%)	1,735	1,738 (3명)	290 (16.7%)	52 (2.9%)	52 (3.00%)	2차 탈락 시 강제정원조정
목포대	1,576	204 (12.9%)	1,591	1,601 (10명)	225 (14.1%)	106 (6.7%)	106 (6.73%)	
순천대	1,628	168 (10.2%)	1,658	1,664 (6명)	143 (8.6%)	20 (1.2%)	118 (7.26%)	
안동대	1,456	398 (27.1%)	1,411	1,413 (2명)	285 (20.2%)	41 (2.8%)	203 (13.94%)	22년 45명 감축
목포해양대	691	33 (4.8%)	691	693 (2명)	6 (0.9%)	36 (5.2%)	최소 69 (10.0%)	특수 목적대

1) '21년 입학정원 대비 해당 연도(기간) 감축 입학정원 2) '22년 모집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

※ 위 각 대학의 담당자 또는 부서장의 전화연결로 파악된 자료로 일부 다를 수 있음

표 2. 일반재정지원대학 대구·경북·강원권 유지충원율 및 미충원 인원

대학명	충원율		유지 충원율	21학년도 미충원	22~25학년도 정원감축 예정 인원
	신입생	재학생			
한동대	100.000	118.896	107.558	0	0
포항공대	99.688	102.422	100.781	1	0
연세대(미래)	99.925	101.186	100.429	1	0
한림대	99.944	100.085	100.000	1	0
경북대	98.508	101.547	99.723	69	69 (21 미충원인원의 100%)
계명대	98.440	101.480	99.656	72	0
영남대	99.430	92.277	99.369	26	0
금오공대	99.586	98.000	98.951	5	0
강원대	98.875	97.434	98.299	51	51 (21 미충원인원의 100%)
춘천교육대	100.000	95.639	98.255	0	0
대구교육대	99.740	94.648	97.703	1	0
경일대	97.601	96.759	97.264	38	-
대구한의대	96.245	93.686	95.222	57	성인학습자과정/ 1,518명의 11% 감축
경동대	95.507	92.756	94.407	74	141(~'22)+89('23) = 230명 감축
경운대	98.395	88.091	94.274	19	23년 0명(프라임), 24년 5%인 59명+α
동국대(경주)	93.303	93.561	93.406	118	
강릉원주대	92.768	93.457	93.043	133	23년 153명
대구가톨릭대	83.764	92.762	87.363	465	23년 393명(13.6%)+α (21년 약대 35명 증)
대구대	80.835	87.577	83.532	780	22년 208명 , 23년도이후 60명 유보 (총장부재)
안동대	72.888	86.813	78.458	398	22년(45명) 포함 203명
한라대	69.101	89.666	77.327	275	-
대경강원권	94.022	96.456	94.996	2,584	21년 기준이며, 3주기 기본역량진단 만점 기준
비수도권	98.774	97.656	98.327	11,108	

3주기 기본역량진단 만점기준 유지충원율에서 만점인 대학
 21년 권역 평균 유지충원율에서 만점인 대학 + 3주기 기본역량진단 만점기준 유지충원율에서 만점 대학
 3주기 기본역량진단 만점기준 유지충원율+ 21년 권역 평균 유지충원율 만점진입하지 못한 대학(누적)

'22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대경강원권 경쟁대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정보공시 기준 (21.04) 신입생과 재학생충원율은 비수도권 기준과 대경강원권 기준의 만점 대학이며, 붉은 색 표시 대학은 비수도권 기준과 대경강원권 기준보다 낮은 대학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권역별 정원감축 범위인 30~50%에 우리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대와 강원대 미달 인원의 100%, 대구한의대는 입학정원의 11%, 대구가톨릭대 13.6% 등 많은 대학이 나름의 생존전략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대학의 감축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각 대학이 놓인 상황이 다르고 단순한 모방이나 이를 절대적인 감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타 대학의 감축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판단은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 함께 고립될 수 있기에 감축의 경향성과 예측성을 토대로 우리 대학만의 예상 감축 인원을 결정해야 하고 학생유치 경쟁 시대에 우리만의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재정손실 등 다각적인 손익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재정손실을 극복할 방안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후폭풍이 오히려 더 두렵지 않을까요?

⑤ '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역량진단평가편람 권역별 설명회에서 일정 순연 요청의견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전달했지만 '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시 자료가 아니며,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⑥ 교수회가 제시한 합리적이라는 감축 방안이라는 단계적인 연착륙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이미 현 집행부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대안 중 하나였으며, 오히려 그것은 입학자원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성이든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회가 제시한 대안이 무조건 옳았고 그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 모든 구성원을 혼돈에 빠뜨리는 표현은 과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⑦ 153명의 모집정원 감축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후, 대학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하였고 최종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

국립대학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6조 등 현행 법령에 따라 대학의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을 부여받은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자입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현재의 법령상 특정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정원은 각 대학이 임의로 증원·감축할 수 있는 대학 자율적인 사항이 아니며, 교육부 승인 이후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정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보면 심의가 필요한 사안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폭넓게 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이는 대학평의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듯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어떤 이슈들이 중요할지 파악해서 그 이슈를 논의하고, 총장이나 주요 행정부서장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학의 운영은 법적인 부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의 의사결정은 공적인 힘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학평의회 설치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사립과 국립은 구조적 차이가 있고 대학마다 차이는 다소 존재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① 입학정원 조정, ② 모집단위 통합·분리·조정, ③ 전공 분리 및 통합, ④ 협동과정 설치·폐지, ⑤ 학위과정 연계 및 통합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립대학과 국립-사립대학 법인의 차이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대학평의원의 역할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모든 대학은 '신입생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과 재학생충원율, 취업률은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며,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은 신입생 충원율의 이중적 사용 부작용에 대한 산출식이 가진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기에 동시 병행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문제점을 교육부에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이러한 신입생충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이 정원 내 전형 이외에 정원 외 전형을 통해 1만3천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실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부실한 지표관리의 주체가 꼭 누구의 책임이냐를 묻기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에 있어 학생이 먼저이고 그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대학의 생존 전략 중 자발적 혁신의 시작이며, 현재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혁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키야 미호, 야나세 히로이치 저자의 「대학의 위기, 뒤집어보면 기회다」의 본문 글귀입니다. “대학이라는 정원(庭園)에는 설계자와 관리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수진과 교직원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인 학생입니다. 이들을 섬세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서 키울 뿐만 아니라 정원을 설계하고 규칙을 정해 보듬으며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매니지먼트라고 말이죠”

향후, 중요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여 대학 발전에 대한 논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5월 12일

기 획 처 장 최 성 범

<공개 질의> 6

대학별 모집정원 감축 결과에 비추어 본 2023학년도 우리 대학의 모집 정원 감축

오랜만에 교수회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2월 말 2023학년도 모집정원 감축에 관한 긴급 <공개 질의>가 멈춘 곳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개 질의는 구성원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의 배경)

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감축과 같은 일시적 처방으로는 우리 대학이 직면한 그리고 향후 직면해야 할 어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구성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 조정 대상 일반대학 136곳 중 40.4%인 55개 대학만이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대학당 감축 인원은 평균 113.8명으로 총 6,260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6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국립대학임에도 정원 153명을 줄인 우리 대학의 결정이 너무 과도했던 것 같아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월 대학 본부의 2023년 160명의 정원 감축안 공표 직후,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가 2021년 미달 인원의 90%인 120명 감축을, 20.7%가 미달 인원의 100%인 133명 감축을 적절한 규모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즉, 84.1%의 압도적 다수가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최소로 줄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를 통해 드러난 타 대학의 대응 수위를 보면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 진행한 총장 중간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가 다른 모든 항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 구성원의 우려가 지난 2월 말 결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 (질문 6-1) 강원도 소재 7개 일반대학 그리고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9개 국가중심대(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의 2023년~2025년 감축한 인원,

정원 대비 감축 인원 비율, 모집 유보 및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 등 모집 정원 감축의 제반 현황을 우리 대학과 비교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6-2) 금번 모집 정원 감축으로 인해 대학회계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3명의 정원 감축을 통해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총액은 얼마이고, 정원 감축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학 본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53명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회계 손실 추산액)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고
연간 손실액	6.12억	12.24억원	18.36억원	24.48억원	4년차부터 매년 24.48억

* 감축 인원 153명 100% 총원 및 1인당 등록금을 400만 원으로 가정하여 추산

- ▶ (질문 6-3) 이번 정원 감축으로 교육부의 지원금은 단 한 번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실은 계속 쌓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학회계의 운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교연학비 예산의 축소, 대학회계 직원의 감원 등 교수 복지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 본부의 의견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개 질의>를 통해 모집 정원 감축에 대한 우리 대학의 결정이 더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아울러 정원 감축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10.13.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 규정

규칙 제1540호, 제정 2015. 8.27.
 규칙 제1638호, 개정 2016.11.15.
 규칙 제1658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1658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1682호, 개정 2017. 2. 1.
 규칙 제1870호, 개정 2019. 8. 5.
 규칙 제1985호, 개정 2021. 2.19.
 규칙 제2025호, 개정 2021. 7.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28조에 의거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2조(권한)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8. 5.>

1. 삭제 <2019. 8. 5.>
2. 교수회 및 교수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8. 5.>
2. 교수회 임원과 감사,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5.>
3. 총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5.>
4. 재적 전임교원 5분의 1이상 또는 단과대학교수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 8. 5.>
5. 교무회, 교수평의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 8. 5.>
6. 기타 총장이나 교수회 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 8. 5.>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1. 각 부총장, 대학원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개정 2016. 12. 30., 2022.2.24.>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제2항 제1호의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대의기구)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교수평의원회를 둔다. 교수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단과대학교수회) 교수회의 권한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단과대학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구성) ① 교수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수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캠퍼스 별 각 1인), 사무처장 1인, 정책국장 1인을 둔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부교수 이상의 재직자로 하며,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본교에 재직 5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 ④ 교무회구성원은 교수회 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5조의2(교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교수회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2017. 2. 1.>

-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학내선거(교수회 회장, 부회장, 평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17. 2. 1.>
- ③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교수회에 의견제시 및 권익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17. 2. 1.>

제6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의 선출은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이 대학교의 재직연한 상위자로 한다. <개정 2021. 7. 20.>

- ② 부회장은 캠퍼스 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이 대학교의 재직연한 상위자로 한다. 다만 재공고에도 선출되지 못하거나, 임원의 임기 중 중도사퇴 등 공석일 경우 교수회장의 추천과 교수평의원회의 의결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 ③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교무회구성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으로 제한한다.
- ④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교수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⑤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만료 30일전 차기 임원의 선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를 위해 각 단과대학교수회의 수석평의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를 두어 선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교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수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2인을 두며 교수평의원이 아닌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과 교수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위촉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정책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교수회와 교수평의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사무처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④ 정책국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정책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 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 11. 15.>
- ③ 임시총회는 학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2. 19.>
- ④ 총회는 회의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의결안건은 회의소집 시 공고된 안건에 한하며, 긴급발의안건은 의결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의사 및 의결) ①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장 및 총장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파견, 휴직, 출장, 연구년 중인 교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⑤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소정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회장은 의결로 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③ 회장은 회의결과를 교내의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제13조(사무직원) 교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제14조(재정) ① 교수회의 재정은 본교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 2. 1.>

- ②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③ 교수회 임원 및 감사와 사무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교수평의원들의 교수평의원회 참석실비(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의 제·개정은 교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칙 <제2076호, 2022.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수회 평의원 명단

단과대학	성명	학과	비고
회장	왕 보 현	전자공학과	교수회장
부회장	강 승 호	국제통상학과	교수부회장
인문대학	황 승 환	독어독문학과	수석평의원
	홍 영 희	중어중문학과	
	김 윤 정	국어국문학과	
사회과학대학	김 영 식	국제통상학과	수석평의원
	이 준 섭	경영학과	
	강 동 석	경영학과	
	이 성 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자연과학대학	손 성 익	수학과	수석평의원 / 정책국장
	강 준 성	정보통계학과	
	민 경 원	생물학과	
생명과학대학	용 영 록	식물생명과학과	수석평의원
	변 희 국	수산생명과학과	
	박 우 정	해양식품공학과	
	장 유 진	식품영양학과	
공과대학	최 병 학	신소재금속공학과	수석평의원
	전 충	생명화학공학과	
	백 중 철	토목공학과	
	서 진 수	전자공학과	사무처장
예술체육대학	이 혜 진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수석평의원
	권 진	패션디자인학과	
	김 용 환	체육학과	
치과대학	김 대 원	치의학과	수석평의원
	장 인 산	치의학과	
	백 경 화	치의학과	
	신 보 미	치위생학과	
	고 경 호	치의학과	
보건복지대학	최 선 하	간호학과	수석평의원
	임 운	다문화학과	
	박 경 옥	간호학과	
과학기술대학	양 길 모	멀티미디어공학과	수석평의원
	이 종 석	기계공학과	
	최 명 복	멀티미디어공학과	
	현 광 민	정보통신공학과	
	이 형 원	컴퓨터공학과	